

6·4 지방선거 표밭 점검

# 행정 전문가 對 국회 전문가 맞대결

# 현직 새정치나 무소속 단일후보나

## 완도군수

완도군수 선거전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우철 후보와 무소속 김인철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로 펼쳐지고 있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은 신우철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무소속 단일화를 이뤘던 김인철 후보가 얼마나 바람을 일으키느냐가 관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단 신 후보는 '준비된 군수론'으로 지역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진도 부군수 출신의 신 후보는 수산청,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남도에 근무하는 등 35년 동안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여기에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과 완도·진도·고창 어촌지도소장 등을 역임하고 이학박사 학위를 가진 해양·수산 전문가로도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완도 군민의 상'과 2011년 전남도 '베스트 간부 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소통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신 후보는 완도 발전의 비전으로 '지역 융합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수산업을 중심으로 농업과 축산업을 융합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양레저 거점마을 조성하고 장보고, 윤선도, 슬로시티, 완도 수목원 등 기존의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원고 이광사 등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제시했다.

신 후보는 특히, 100세 평생학습 지원센터 운영과 행복 복지기금 조성 등을 통해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한국수산물선립과 장보고 리더십센터 구축 등을 통

해 인재 육성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광주~완도 고속도로 조기 건설, 연도·연륙교 건설 등을 통해 완도의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하고 있다.

신 후보는 "과도한 경쟁보다는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의 동력을 한데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낮은 자세로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

## ■완도군수 후보



정당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신우철(61)	무소속 김인철(62)
경력	·전 진도군청 부군수	·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주요 공약	·해조류 사업의 미래 성장 동력 육성 등 지역융합형 경제발전 추진 ·새로운 문화콘텐츠와 마케팅으로 500만 관광객 시대 주도 ·한국수산물선립 유치 등 지역 인재 육성	·연도·연륙교 건설로 해상 교통난 개선 ·부두·방파제 건설로 섬 주민 정주 여건 강화 ·완도 국제무역항 제3부두 개발

## 새정치 후보 우세속 무소속 단일화 바람 변수

### 500만 관광객 시대, 연도·연륙교 건설 등 공약

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는 무소속 김인철 후보는 '머슴론'을 내세우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특히, 김 후보 측에서는 무소속 단일화를 이룬데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경선의 후폭풍 등으로 바다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며 역전 승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지 세력도 만만치 않다. 김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에 박삼재 완도군의 회 의장이 나섰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경선에서 1% 포인트 차이로 분루를 삼킨 김진 전 완도군의원도 측면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출신의 김 후보는 20여년 동안 국회 및 입법 지원 활동을 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김 후보는 국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쌓은 전문성과 중앙 인맥을 통해 완도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두 번의 음주운전과 장남의 병적제적(국적상실)은 김 후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 후보는 해양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인 관광 명품도시 건설을 완도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정 바다 유지 ▲연도·연륙교 건설 ▲완도국제무역항 제3부두 확대 개발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시설 확충과 기업 유치 ▲보건 의료·노인복지 시설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김 후보의 공약은 구체성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해남군수

해남군수 선거는 현직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철환 후보와 무소속 단일 후보인 김병욱 후보가 양자 대결을 펼치고 있다.

박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경선에서 윤광국 예비 후보를 물리치고 공천을 받았다. 반면, 김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박용상 후보와 전화 여론조사 등을 통해 무소속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하지만 전체적인 판세는 박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직 해남군수인 박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박 후보는 여유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 너무 자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박 후보는 일단, 지난 4년 동안 해남군정을 별다른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122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근거다. 이는 박철환, 김중식 전직 해남군수들이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된 것과 대비되면서 상당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박 후보는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어업소득 1조원 시대를 열어나가고 농·수산물의 안정적 유통망 확보와 가공산업 기반구축 등 성과로 평가받는다.

박 후보는 '도약하는 해남'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다.

이를 위해 혁신적 공직문화 조성, 일사천리 민원지원 콜센터 구축 등을 통해 '군민치유 일선 행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치유 기능성 농·수산물 개발, 친환경 농업 건전성 강화, 으뜸 부자마을 프로젝트, 진수성찬 스테이션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여기에 통합안전 관리센터 건립, 노인성 질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작은 도서관 조

성 지원, 서남권 광역화 장장 건립, 해남을 종합정비사업 추진 등의 복지·환경 분야 공약도 다양하게 제시했다.

여기에 어린이 전문치유 숲 조성, 두륜산 선체협센터 건립, 치유 음식 특화단지 조성 등 '힐링 시티'로의 청사진과 함께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인재 교육 지원 강화에도 적극

## ■해남군수 후보



정당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박철환(55)	무소속 김병욱(51)
경력	·해남군수	·전 전남도의원
주요 공약	·힐링 푸드로 농수산업 1조원 시대 달성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등 일류 복지 실현 ·문화와 품격이 흐르는 해남을 종합정비사업 추진	·주민참여 예산제 등 군민중심 공약 실현 ·독거노인 '하루 안부' 그룹방 구축 등을 통한 복지 강화 ·서남권 농·수·축산 유통망 확립 등을 통한 농·수·축산 경쟁력 강화

## 박철환 현군수 유리...김병욱 막판 역전 기대

### 힐링 시티 조성·주민참여 예산제 등 공약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는 무소속 김병욱 후보는 후보단일화 이후 바다 민심이 움직이고 있다며 막판 역전을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의원 출신인 김 후보는 원예학과를 졸업하고 개미농장 대표를 맡고 있는 농업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벼농사 어린 모 육성 시범 개발에 공헌해 산업포장을 받았다. 전남도의원 재직 때 토양개량제 입상화로 전국 우수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주목을 끄는 것은 자신에 잘못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다.

그는 공보물의 한 페이지를 털어 읍주운전(2009년)과 관련, 자신의 불찰이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유권자들에 요청했다. 같은 읍주운전 전과가 있는 박철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공보물 소명서에 밝

힌 '취기를 느끼지 않아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주장과 대비된다는 평가다.

김 후보는 '더불어 잘사는 해남'을 캐치프레이즈로 해남 구석구석을 다지고 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독거노인 '하루 안부' 그룹 방 구축, 청소년 거리문화 시스템 구축, 군민중심 군정운영,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서남권 농·수·축산물 구조조망 확립, 읍내에 걷는 문화 조성, 농기계 임대사업 강화, 해조류 가공사업 육성, 마을 단위 공영문화 활성화, 영·유아를 위한 문화센터 조성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다만 공약적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굵직한 해남 발전의 그랜드 디자인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아쉬움도 지적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 1선거구 새정치-무소속 3파전...2선거구 이경동 단독 출마

### 도의원

완도 전남도의원 제1선거구 선거는 이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무소속 이주열, 무소속 박현호 후보의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일단, 완도 청년회소 회장 출신의 이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은 데다 무소속 후보가 두 명이라는 점에서 유리한 상황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

하지만, 광양시 부시장과 완도 부군수 출신의 박현호 후보도 전문성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역 민심을 다지고 있어 결과를 선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구 민주당 중앙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무소속 이주열 후보도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세를 넓혀가고 있다.

### ■완도 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 (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이철 (47·민·전 완도 JC회장)
제1선거구	이주열 (46·무·완도야구연합회장)
제1선거구	박현호 (62·무·전 완도군부군수)
제2선거구	이경동 (59·민·전 완도 신지면장)

※민=새정치민주연합, 진=통합진보당, 무=무소속

제2선거구는 새정치민주연합 이경동 후보가 단독 출마했다.

## 1선거구 명현관 사실상 확정...2선거구 김효남·오영택 경쟁

### 도의원

해남지역 전남도의원 선거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치러지고 있다.

제1선거구에서는 현 전남도의원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명현관 후보가 단독 출마,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명현관 후보는 전남도의회 경관위원장 등을 지내며 무리 없이 의원 활동을 마무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친환경 급식

등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도 내걸고, 광주·전남유전자연합이 선정하는 '최우수의원상'을 받기도 했다.

제2선거구에서는 현 전남도의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효남 후보와 무소속의 오영택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판세는 현도의원인 박철환이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은 김 후보가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해남 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 (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명현관 (51·민·전남도의원)
제2선거구	김효남 (61·민·전남도의원)
제2선거구	오영택 (55·무·전 전공노 부위원장)

※민=새정치민주연합, 진=통합진보당, 무=무소속

출신의 오영택 후보는 해남군 공무원 시절 구축한 인맥과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지세를 넓혀가고 있다.

TV조선 특별기획드라마

# 불꽃속으로

격동의 시대를 살아야했던 이들의 사랑과 야망!

기획 TV조선 제작 강호 트로이선 크리에이터 정성희 극본 이한호 연출 김상래

최수종 손태영 류진 최철호 이인혜 독고영재 정호빈

박상면 홍일권 김진근 이종수 공정환 이정용 최규한 이기찬 현석 김민경 전수경 이철민 고명환 정명환 이영후 이원석 조영서 김권 김예원 윤홍빈 김현준

4월 25일부터 매주 금·토 밤 11시 방송